

디자인교육에서의 표현 재료와 방법에 대한 연구(1)

A Study on the expressions material and method in design education(1)

임남숙

대구교육대학교

Im, nam-sook

Daegu National Univ. of Education

요약

디자인교육에서의 표현 재료와 방법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하고 이에 의한 미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자인의 표현 영역도 넓혀지고 과학 기술 발달은 디자인에 새로운 재료와 표현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오감각에 대한 심리적 요인도 표현의 재료와 구현 방법에 감각적 체험이란 요인으로 현 디자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급속한 발달을 해 왔다. 디자인의 표현 재료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 계발과 심미안을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Abstract

The study notices the value of the expressions material and method in design education as the subject of for appreciation stud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it is as follows: to understand education system and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diverse elements including in the value of the expressions material and method; to get an overall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of life; and to develop contents for appreciation study which points to help learners perceived values.

I. 서론

1. 연구 문제의 필요성과 목적

디자인교육에서의 표현 재료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예술로서의 의외성과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여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사고를 통해 창의성 계발의 효과를 기대한다. 표현 재료와 구현 방법은 디자인만이 아니라 전 미술의 영역에서 미술의 가장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 디자인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미적으로 표현 재료와 방법을 실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다.

발달되는 여러 산업 기술의 결과로 손쉽게 이미지를

스캔, 복사 가능하고 이미지를 쉽게 복제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수작업의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나 방법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기피하게 되어, 재료 본성의 물질성에 대한 학습이 미비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시사하여 재료 본성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강화하고 표현 방법에 대한 선입견이나 한계를 없애면서, 재료 본질에 대한의외성과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의 자극과 창의성 계발의 효과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 공교육의 디자인 교육은 미적 체험과 표현, 감상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 세 활동은 연관되며 서로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재료에 대한 선행된 연구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둘째, 다양한 재료를 통한 각 메커니즘을 살피고 이를 표현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안으로 제시한다.

II. 본론

1. 재료의 특징과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

재료는 조형의 기본이 된다는 점으로 중요하다. 특히, 현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조형을 만들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재료가 아니라, 재료 자체의 본연의 질감과 느낌이 조형의 주제로 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재료의 의미는 상당히 광의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료에 숨겨져 있는 점을 소생시키는 미적 탐색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학습 활동에서 다양한 미적 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재료 자체만이 지닌 '촉감적' 상태를 컨셉으로 활용하여 디자인 작품으로 연결시킨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후카사와 나오토의 바나나 자체를 눌러 만든 것 같은 바나나 우유 패키지를 촉감으로 표현해 바나나 맛의 미각을 촉감으로 디자인 중심 이미지를 구현했다.



▶▶ 그림 1. 재료에 대한 촉감적 상태를 컨셉으로 활용한 예 1 (후카사와 나오토 작품)¹⁾

또한 귤터 우에커(Guenter Uecker)²⁾는 못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못 자체의 뾰족한 날카로운 촉감과 굵거나 정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의 상황을 도출하여 조형하였다.

이 못이란 재료는 '의자', '책상' 등의 조형 주제와 연결하므로 심리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은 재료와 방법의 본연의 특성을 알아야만 되고, 여기서 얻고자 하는 형태적 이미지를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기법을 숙련하는 정도가 요구되고 조형되는 대상과의 감정 교류가 되도록 이미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 그림 2. 재료에 대한 촉감적 상태를 컨셉으로 활용한 예 2 (귤터 우에커 작품)³⁾

2. 표현 재료와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학습자의 생활에서의 표현 재료와 접했던 경험을 학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특히 재료 자체를 경험했던 감각과 느낌을 이해하도록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학습자들의 생활에서 접하는 디자인 대상에 대한 재료적인 관찰하고 기억에 남는 대상을 수집하여 표현 재료에 대한 자신만의 느낌을 인지하도록 한다.

조형 활동의 표현되는 주체인 재료만으로 고유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미적 감각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미적 실험을 계획하여 표현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1) 후카사와 나오토, 2009년 4월 11일 조선일보.

2) Kunst + Unterricht (1998). Heft 220/Maerz. 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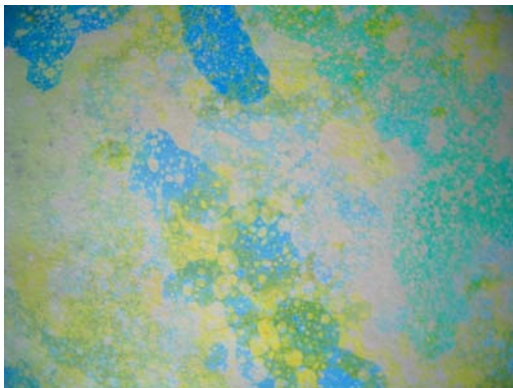
3) 귤터 우에커, '책상', 1963년.

2.1 재료와 표현 방법의 우연성의 실험

미적 실험에서의 우연성이란 예기치 못한 미적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와 도구인 종이와 물, 물감, 주방 세제, 칼의 5종류의 준비물을 주고 자신만의 조형을 하도록 한다. 이때의 주제로 하나의 촉감적 형용사를 선택하여 이 형용사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는 조형을 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활동하는 미적 실험이 어떠한 특성의 느낌(선택되어 학습활동에 적용된 형용사: 예컨대, 말랑거리, 는, 딱딱한, 거친, 날카로운, 차가운 등)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미적 시도나 실험이 요구되는지 계획하고, 나올 수 있는 미적 결과를 예측하여 언어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 그림 3. 재료에 대한 우연성을 촉감적 주제로 활용한 예 (학생작품)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 [1] 후카사와 나오토, 2009년 4월 11일. 조선일보.
- [2] Kunst + Unterricht (1998), Heft 220/Maerz.
- [3] 귄터 우에커(Guenter Uecker), 'Tisch(책상)' . 1963년.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료에 대한 본질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대한 감각적 체험을 강화하고 표현 방법에 대한 선입견이나 한계를 없애면서, 재료 본질에 대한 의외성과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안 제시를 하였다.

흔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인 종이, 물감, 주방 세제, 칼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한 심리적인 느낌을 조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표현 재료와 방법으로 새로운 사고 자극과 창의성 계발 효과를 기대한다.